

광주시, 존엄한 삶 있는 고령친화 건강활력도시 만든다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2025 시행계획' 53개 과제 확정 9445억 투입...스마트 돌봄복지·보건요양정책 강화 등 추진

광주시가 스마트 돌봄복지와 보건·요양정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고령친화 건강활력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관·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9445억원 규모의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2024년도 실행계획 점검 및 2025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25 시행계획'은 2023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가입 이후 해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제2기(2023-2027년)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르신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물리적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시는 2025년에는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건강활력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총 사업비 9445억원(2024년 대비 768억원 증가)을 투입해 ▲일자리와 경제활동(1603억원) ▲문화·여가와 사회참여(237억원) ▲스마트 돌봄복지(6543억

원, 기초연금 6237억원 포함) ▲보건·요양(922억원) ▲생활환경 개선(140억원) 등 5개 영역,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내용 중 우선 확대해야 할 노인복지정책으로 빈곤 완화,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노인돌봄(요양) 서비스, 치매 관련 서비스 등을 선정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주요 세부 과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장년층 빛고을50+일자리 및 생애재설계 온·오프라인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기초연금 확대 ▲치매특화형 서부권노인복지시설 건립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위원회와 관계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성 권익증진 앞장...전남 여성대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27회 전라남도 여성대회' 행사에서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내빈들과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일소피해 등 2299농가에 ha당 100만원...27억원 투입

전남도가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햇볕 데미지 피해(일소)가 발생했음에도 재배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운 배 재배농가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지역 폭염(고온) 일수는 평년보다 4배나 많은 33.1일에 달했다. 이 때문에 배 작물에 일소피해가 발생했지만, 봉지를 씌우는 배의 특성상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수확 후 저장고에 보관·선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재해인정, 경영안전지원,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정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과 자체적으로 긴급 경영안전 자금 27억원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배를 재배한 2299농가(2710ha)다. ha당 100만원을 내년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보험금 약 38억원을 지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5년간 이상저온, 태풍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올해는 일소피해까지 겹쳐 어려운 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관광업계 위기 극복 대응책 모색

전남도가 비상계엄 사태로 급격히 위축된 지역 관광산업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18일 전남관광재단과 여행·숙박·관광 시설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령 이후 급격히 악화된 관광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관광업계 지원 방안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와 중장기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도가 추진할 내년 주요 관광정책을 소개하고 도내 관광시설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앞서, 전남도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를 위해 전남지역 807개 여행사에 홍보·마케팅비로 300만원씩 12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전남도와 관광재단은 실질적인 관광업계 지원책을 마련, 추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경제 살려라”...광주상생카드 내년 1월 10% 특별할인

광주시·자치구 100억 투입 광주은행과 공동추진 협약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해 1월 한 달 동안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시행한다. '12·3 계엄·탄핵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공공배달앱 연달 특별할인 프로모션에 이은 두 번째 긴급 처방이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개 자치구, 광주은행과 함께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임택 동구청장, 백남인 서구 부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김중화 북구 부구청장, 박병구 광산구청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설 명절이 있는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늘린다.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 광주상생카드에

상 발행 규모는 총 1000억원 규모다.

특별할인에 따른 지원비용은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광주시 60%, 5개 자치구 40% 비율로 분담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특별할인으로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상생카드는 시민이 선정한 올해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4위에 꼽힐 정도로 시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인당 선불·체크카드 통합 50만원 내에서 10% 특별할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즉시 구매나 충전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충전(구매)한 금액 중 1월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다음달에 10% 할인지원금(후계시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월 이전에 충전(구매)한 금액도 1월에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기존에 추진했던 광주상생카드 결제 수수료(0.25%-0.85%) 전액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이 대상이다.

한편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연말 특별할인, 소비자직자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하며, 주말에만 발행하던 2000~3000원의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했다. 특히 24일과 25일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최대 4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중국 저장성과 청소년 교류 행사

저장성 역사·문화 탐방 등

전남도가 오는 21일까지 6일간 중국 저장성을 방문해 전남도-중국 저장성 청소년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전남도-저장성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두 지역 청소년의 국제적 이해 증진과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를 목표로 22회 동안 1천 208명의 청소년이 교류에 참여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2년-2023년 비대면으로 추진했으며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다.

저장성 방문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한 전남 청소년 26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5개 시·군 10

개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저장성 청소년들과의 문화 교류 활동, 역사적 명소 탐방, 현지 전통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저우 기념관을 방문해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차이나오 그룹, 항저우 드림타운 등 중국 기업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장성의 문화, 역사, 경제 등을 직접 경험하고, 두 지역 청소년 간 우정을 나누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환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믿음이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